

<http://dx.doi.org/10.20880/kler.2017.52.2.5>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갈등에 관한 인식 양상 연구

김재봉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이 논문은 제63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7.4.22- 2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인성 교육에서의 갈등의 수준 및 유형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암과 삶의 연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암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성은 길러지기 때문에 인성의 형성과 교육 그리고 갈등은 또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이처럼 인성의 형성과 갈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의 이해는 인성에 대한 이해와 인성 교육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성에 대한 이해와 인성 교육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상 탐색의 의도는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 이해가 인성에 대한 이해와 인성 교육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인성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활동으로서의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 탐색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¹⁾

연구문제1.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혈액형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대화 시간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대화 형태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5.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성향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

1) 이 글에서는 양적 측면에 의거한 갈등의 인식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지면을 달리 하여 양적 측면에서 기술된 양상을 질적 측면의 연구 방법으로 보완하여 드러난 인식의 양상, 그리고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의 탐색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어떻게 인성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다섯 가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한 것은 비록 차후의 연구 과제이지만 맞춤형 인성 교육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면서 갈등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인성의 형성은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별이나 혈액형, 대화 시간의 많고 적음, 대화의 형태 중에서 토론을 중심으로 하되 이를 세분화하여 살피고자 했고,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II. 인성 교육에서의 갈등의 수준과 유형

1. 갈등의 개념과 수준

갈등의 개념과 수준에 대해 살피기 전에 먼저 인성에 대한 이해와 인성 교육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서 인성의 형성과 교육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인성의 개념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표준국어대사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²⁾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할 때 흔히 인성 교육 담당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인성 교육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서 인성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성 교육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무시하기가 쉽다. 그렇다보니 피교육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성 교육이 이뤄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성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맞춤형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맞춤형 인성 교육은 인성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양상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의도적인 교육적 처치 행위를 그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인성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인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과 같이 인성을 정의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갈등의 양상을 탐색한 결과를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정의도 활용될 것이다.

인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갈등은 언어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침과 등나무가 서로 얹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이다(표준 국어대사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당신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관심사, 필요성, 바람, 또는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마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당신이 감지하는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Berko et al., 2013: 181 재인용). 심리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인간이나 동물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수행하도록 자극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스테이크를 먹을까? 바닷가재를 먹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이 예에 해당된다. 갈등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든 갈등에는 갈등을 경험하는 주체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주체와 상황의 관련성에 따라서 갈등의 인식이나 해결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갈등의 개념과 성격이 이와 같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인성 교육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인성 교육과 갈등(의 인식 양상)은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갈등의 개념과 더불어 갈등의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갈등의 수준에 대한 이해는 인성 교육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erko et al., 2013: 184-185).

수준1은 “무갈등(no conflict)”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준2는 “잠재적 갈등(latent conflict)”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갈등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

수준3은 “해결해야 할 문제(problems to solve)”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집중을 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당당하게 대처하지만 사람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는다.

수준4는 “논쟁(dispute)”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욕구에 집중된 갈등이 수반된다. 개인들은

생점을 두고 싸우며, 점점 파괴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한다.

수준5는 “도움(help)”의 단계이다.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친구나 전문가, 조정자 등의 도움을 구한다. 제3자가 도움을 줄 경우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도움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수도 있다. 만일 법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않다면 제3자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절차를 충실히 진행시켜야 한다. 강제적으로 개인들이 해결책을 제시받는다면 거의 항상 이들은 분노하기 때문이다.

수준6은 “싸움 또는 탈출(fight or flight)”이다. 만약 도움이 실패로 끝나거나 또는 서로가 너무 화가 나서 서로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움직이거나(선전 포고 등), 서로를 패배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애쓰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한다. 육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 파괴, 또는 심지어 살인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싸움의 단계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이혼을 하거나 직업을 그만두는 것과 같은 행동이 선택될 수 있다. 이 단계가 탈출의 단계이다.

수준7은 “처치 곤란(intractability)”의 단계이다. 사람들이 싸움이나 탈출의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갈등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서로를 파괴하거나 싸움을 계속할 의지를 잃을 때까지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

2. 갈등 관계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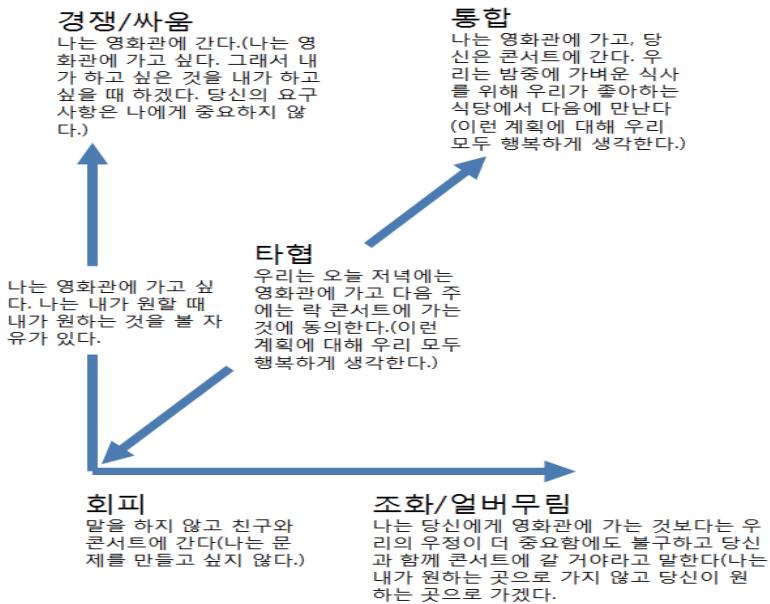
갈등 관계는 그것이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접근-접근 갈등”(예: 바닷가재를 먹을까? 스테이크를 먹을까?)과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회피-회피 갈등”(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는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처벌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 아이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자신의 불쾌감만 증가시킬 뿐이다), 그리

고 긍정과 부정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접근-회피 갈등”(수줍음을 타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접근)에게 말을 걸고 싶어함과 동시에 놀라(회피)를 당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매력적인 사람 쪽으로 접근하면 두려움이 점점 더 강해진다. 두려움이 끌림과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멈춤이 이뤄진다.)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Mook, 2007: 273-278).³⁾

이러한 갈등 관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갈등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갈등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갈등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갈등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이다. 갈등 자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은 절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반응하는 방식을 선형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Berko et al., 2013: 192).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면 사람들은 갈등에 대한 인식 혹은 반응 방식에서 경쟁적이 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며, 조화를 지향하기도 하고, 타협과 통합을 하기도 한다. 경쟁은 두 주장이 있을 때 자기주장을 우선하는 것이고, 조화는 자기주장을 양보하는 것이며, 회피는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타협은 둘 다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통합은 둘 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새롭게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의 상황에 대한 이러한 반응 방식의 차이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서 결국에는 인성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바로 인성의 형성과 발현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방식의 차이는 인성 교육, 특히 맞춤형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

3) 여기서 언급된 갈등 관계는 맞춤형 인성 교육의 방안을 논의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인식의 양상과 관련하여 개념 정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1〉 갈등의 유형

을 탐색함으로써 인식의 양상에 의거한 맞춤형 인성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갈등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바람직한 인성 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설문지 수집 과정

이 연구의 대상은 2017년에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1학년(신입생) 352명이다. 이 중에서 남학생 153명, 여학생 186명, 총 339명이

설문에 응답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3명이 제외되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신입생들이 아직 대학 교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부터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었다. 외생 변수의 영향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문의 시기도 고려되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설문의 시기를 교육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학일(3월 2일) 다음 주로 결정했다. 설문지 처리를 강의담당 교수에게 의뢰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담당 교수가 3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설문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Berko 등이 제안한 “갈등 양상 파악을 위한 설문지”이다(부록 참조).

2. 설문지의 내용과 처리 방법

먼저 5가지 기본 정보(성, 혈액형, 대화 시간, 대화 형태, 개인의 성향)에 대한 자료 수집 문항을 제시하고, 이어서 Berko 등이 제안한 설문지⁴⁾를 제시하여 의견을 피력하게 했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4) 설문지의 구성 내용과 타당성, 처리 방식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설문지에서 유사한 문항이 어느 경우에는 T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F가 되기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의 맥락(경쟁, 조화, 회피, 타협, 통합)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T와 F를 동일하게(예를 들어, ‘경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갈등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별 문항의 개수의 불일치에 의한 설문 구성의 타당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경쟁은 11개, 조화는 9개, 회피는 10개, 타협은 7개, 통합은 9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동등하게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갈등을 인식하는 상황이 너무 다양하고 갈등 상황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타협과 통합의 양 쪽 모두에 관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자연에 존재하는 인과의 법칙처럼 명확하게 확정지울 수 없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갈등의 양상을 인식하기 위해 Berko 등이 제안한 이 설문지의 기본 형태를 바꿔서 처리하기보다는 원저자들의 제안 의도를 존중해주는 것이 좀 더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문항 구성을 새롭게 할 수 없었음을 밝히는 선에서 설문지 문항 구성의 동등성에 기반한 타당성 문제를 접근하기로 한다.

“T나 F”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총 23문항인데, 한 문항에 “T나 F”와 같은 2개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46개 중에서 절반을 선택해야 하므로 설문 응답자 개인이 선택한 문항은 46문항이 된다. 46문항 중에서 “경쟁”에 해당되는 것은 11개를 최대로 선택할 수 있다. 각 문항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선택한 개수를 세어서 빈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간등의 양상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설문지 1에 “T나 F”를 6개 표시했다면 60점이 된다. 설문지 1은 “경쟁”을 의미하는데 총 11개 문항이다. 모두 선택한다면 110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2(조화)는 9개 문항이고 모두 선택하면 90점이다. 3(회피)은 10문항이고, 4(타협)는 7문항이며 5(통합)는 9문항이다. 설문지에 결과를 표시한 다음 “경쟁, 조화, 회피, 타협, 통합”的 분포를 보면 분포에 따라서 간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에 9개, 조화에 2개, 회피에 1개, 타협에 3개, 통합에 8개를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경쟁과 통합의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의미이다. 앞의 예는 각 개인의 인식 양상과는 관계가 없는 결과 처리의 예를 하나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1>인데, 여기서 보면 이 응답자의 간등에 대한 반응 양상은 경쟁형이면서 통합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처리에 의거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고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질적 변수로 되어 있는 5개는 더 미변수로 전환하여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결과를 처리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1의 연구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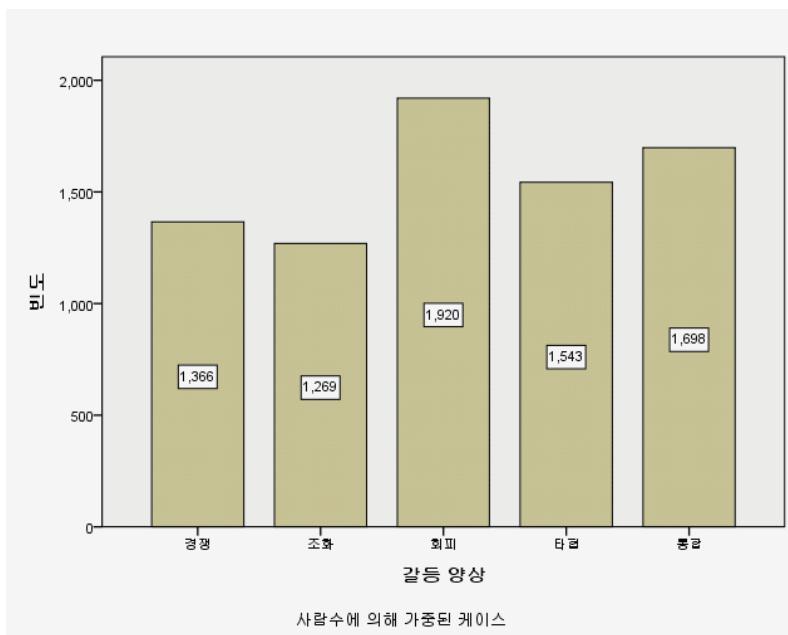
연구문제1은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간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

〈표 1〉 한 개인의 갈등에 대한 반응 양상

	1 경쟁/공격	2 조화/얼버무림	3 회피	4 타협	5 통합
120					
110					
100					
90	•				
80					•
70					
60					
50					
40					
30				•	
20		•			
10			•		
0					

한가?”이다. 이에 대해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은 성별의 구별 없이 처리했을 때 갈등에 대해 “회피>통합>타협>경쟁>조화”와 같은 순서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선택한 빈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인식의 양상을 평균값으로 확인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다음의 〈표 2〉에 의하면 평균은 회피(형)이 5.69로 가장 높고, 조화(형)가 가장 낮았다. 반응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회피>통합>타협>경쟁(공격)>조화”와 같다. 〈그림 2〉에 의해서든, 〈표 2〉에 의해서든 회피형이 가장 많고 조화형이 가장 낮다. 회피가 “① 몸을 숨기거나 남을 잘 만나지 아니함, ② 꾀를 부려 마땅히 쳐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③ 일하기를 꺼리어 선뜻 나서지 않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표준국어대사전) 광주교대 신입생들이 갈등 상황에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솔선수범의 미흡, 책임감 부족, 소극적 대응”과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림 2〉 성별에 따른 구별이 없는 갈등 인식 양상

〈표 2〉 성별에 따른 구별이 없는 갈등 인식 양상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조화형	335	0	9	3.74	1.924
공격형	337	0	10	4.04	2.119
타협형	339	0	7	4.55	1.280
통합형	339	1	8	5.01	1.479
회피형	337	2	15	5.69	1.502
유효수(목록별)	331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갈등 해결을 통한 인성 교육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단서를 암시해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화가 가장 낮은 것도 두 생각이 대립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배려

〈표 3〉 융합형이 추가된 인식 양상

		학생수	비율
1	경쟁(공격)형	52	15.3
2	조화형	42	12.4
3	회피형	86	25.4
4	타협형	24	7.1
5	통합형	61	18.0
6	융합형	74	21.8
	총합	339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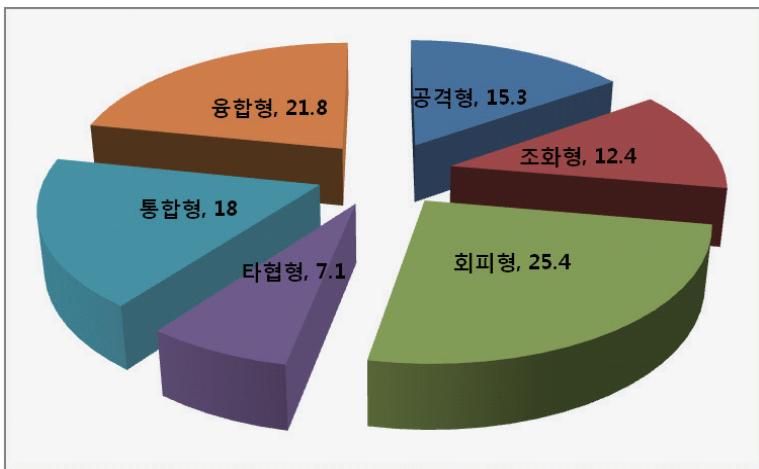
해줄 때 인성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이고 조화를 강조하는 인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연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학생들의 갈등에 대한 반응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을 중심으로 판정했을 때 〈표 3〉과 〈그림 3〉과 같이 융합형이 추가되어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⁵⁾ 융합형은 한 개의 반응 유형만 1순위로 나타나지 않고 2개 이상의 갈등 반응 유형이 공동 1순위로 나타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김미경 학생이 공격형(경쟁형) 80점, 조화형 80점, 나머지 두 개는 30점, 한 개는 10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에 김미경 학생은 “융합형(공격·조화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융합형이 새롭게 하나의 갈등 인식 양상으로 파악된 점에 의거하여 유추할 때 갈등에 대한 인식 양상의 다면성을 인정해주어야 함과 동시에 갈등 인식 양상을 통한 인성 교육은 Rutherford가 행한 종양 문제의 해결에서 보여준 실험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⁶⁾ 그 실험은 “약한 힘을 수렴적으로 모아 강하게 만들어 집중할 때 종양을 해결할 수 있다.”이다. 이 실험은 종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주변

5) 새롭게 추가된 유형을 이 글에서는 융합형이라고 명명한다.

6) 실험 내용과 결과는 박창호 외(1998: 284-287)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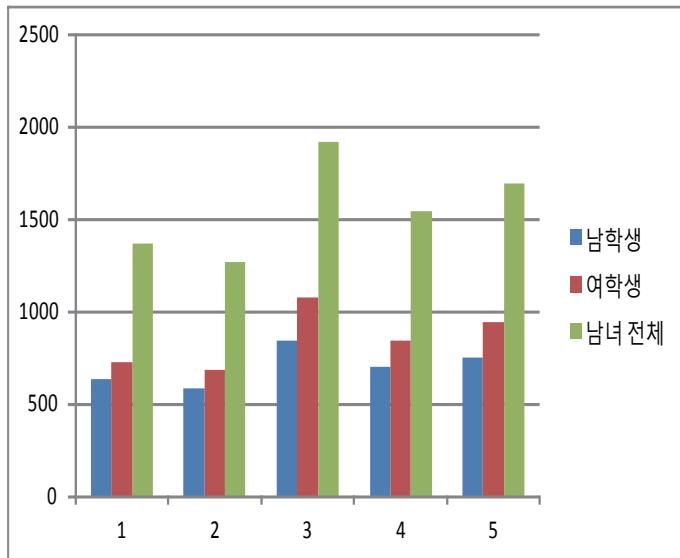
〈그림 3〉 융합형이 추가된 인식 양상

의 손상이 없이 여러 방면에서 레이저를 쏘아 종양이 있는 부근에 집중시켜 종양을 없앰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암 치료의 방법을 인성 교육의 문제와 연관 지어 해석한다면 인성 교육도 일시적으로, 그리고 한 측면에서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에서 스펜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위에서 이러한 유형을 〈표 3〉과 〈그림 3〉처럼 제시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인식 양상을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⁷⁾

〈그림 4〉에 의거해서 비례 관계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전체 응답자 중에서 남학생은 153명이고, 여학생은 186명이었다. 여학생이 33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

7) 경쟁(1): 남-639, 여-727, 합계-1366; 조화(2): 남-582, 여-687 합계-1269; 회피(3): 남-846, 여-1074, 합계-1920; 타협(4): 남-700, 여-843, 합계-1543; 통합(5): 남-754, 여-944, 합계-1698과 같은 선택 빈도를 보인다. 이것은 앞의 〈그림 2〉와 같은 빈도이다.



〈그림 4〉 성별에 따른 인식 양상

할 수 있다. 경쟁을 선택한 남학생은 639이고 여학생은 727이다. 비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여학생은 경쟁의 경우 “525.62”, 조화의 경우 “478.74”, 회피의 경우 “883.45”, 타협의 경우 “693.43”, 통합의 경우 “776.5”가 요구된다. 그런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639”이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경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경향성을 볼 때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가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남학생에게는 경쟁을 완화하는 인성 교육을, 여학생에게는 경쟁을 좀 더 강화하는 인성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도 추론을 할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화(양보)를 더 선호하고, 덜 회피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타협과 통합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화를 덜 선호하기 때문에 여학생에게는 조화를 강조하는 인성 교육으로 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이긴 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덜 회피하기 때문에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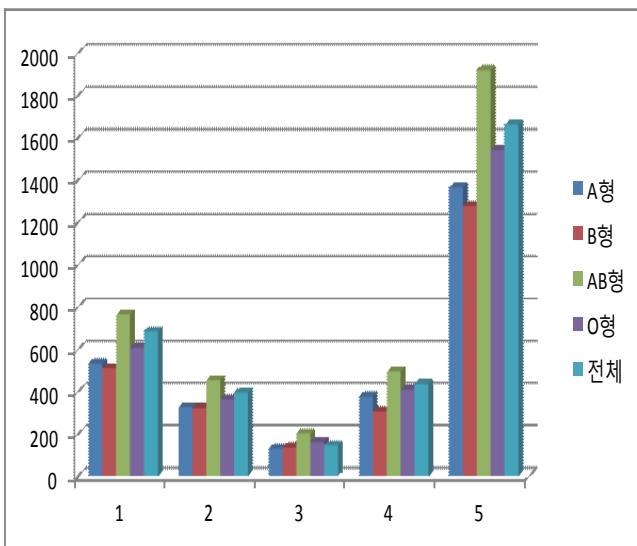
학생들에게는 회피를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인성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문제2의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2는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혈액형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

〈표 4〉 혈액형별 인식 양상

	A형(135명)	B형(81명)	AB형(35명)	O형(88명)	전체
경쟁	532	327	131	376	1366
조화	512	323	137	307	1279
회피	766	455	203	496	1920
타협	608	364	162	409	1543
통합	685	395	147	436	1663



〈그림 5〉 혈액형별 인식 양상

의 양상은 어떠한가?”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그림 5>와 같다.

위의 <그림 5>에서 “1=A형, 2=B형, 3=AB형, 4=O형”이고, 막대는 각 번호의 왼쪽부터 “경쟁, 조화, 회피, 타협, 통합형”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과는 “A, B, O형”이 “회피(왼쪽에서 3번째 막대)>통합(왼쪽에서 5번째 막대)>타협(왼쪽에서 4번째 막대)>경쟁(왼쪽에서 1번째 막대)>조화(왼쪽에서 2번째 막대)”와 같은 인식의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혈액형과 갈등 인식의 양상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다만 ‘AB’형의 경우 “회피>타협>통합>조화>경쟁”과 같이 “타협”을 좀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표 4>에 의하면 혈액형과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과는 상관이 없다.

3. 연구문제3의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3은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대화 시간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이다. 이 연구문제3은 대화 시간과 갈등에 대한 반응 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먼저 전체적인 설문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위의 <표 5>에 의하면 대화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전체적인 경향은 “회피>통합>타협>경쟁>조화”와 같은 인식의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혈액형에 따른 인식의 양상”도 같다. 그런데 이러한 경

<표 5> 대화 시간에 따른 갈등 인식 양상

	10분 미만(2명)	10분~30분(30명)	30분 이상(307명)
경쟁	4	112	1250
조화	10	131	1123
회피	10	173	1737
타협	9	135	1399
통합	12	126	1550

향과는 별도로 대화 시간이 질수록 조화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화 시간과 갈등 반응 유형 중의 조화형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시간이 질적 변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6~10>과 같다.

<표 6> 대화 시간에 따른 갈등 인식 양상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N
조화형	3.74	1.924	335
대화시간dummy2	.9045	.29437	335
대화시간dummy1	.0060	.07715	335

<표 7> 대화 시간에 따른 갈등인식 양상의 상관계수

상관계수

		조화형	대화시간 dummy2	대화시간 dummy1
Pearson상관	조화형	1.000	-.140	.051
	대화시간 dummy2	-.140	1.000	-.238
	대화시간 dummy1	.051	-.238	1.000
유의확률(단측)	조화형	.	.005	.176
	대화시간 dummy2	.005	.	.000
	대화시간 dummy1	.176	.000	.
N	조화형	335	335	335
	대화시간 dummy2	335	335	335
	대화시간 dummy1	335	335	335

〈표 8〉 대화 시간에 따른 갈등 인식 양상의 모형 요약

모형 요약 b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41a	.020	.014	1.911

a. 예측값: (상수), 대화시간dummy1, 대화시간dummy2

b. 종속변수: 조화형

〈표 9〉 대화 시간에 따른 갈등 인식 양상 분산 분석

분산 분석 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24.499	2	12.50	3.354	.036a
잔차	1212.384	332	3.652		
합계	1236.884	334			

a. 예측값: (상수), 대화시간dummy1, 대화시간dummy2

b. 종속변수: 조화형

〈표 10〉 대화 시간에 따른 갈등 인식 양상에 관한 계수

계수a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공선성 통계량	
모형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VIF
1	(상수)	4.533	.349		12.994	.000		
	대화시간 dummy2	-.883	.366	-.135	-2.415	.016	.943	1.060
	대화시간 dummy1	.467	1.396	.019	.334	.738	.943	1.060

a. 종속변수: 조화형

위의 〈표 6~10〉에 의한 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에 의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Y(\text{조화형}) = 4.533 - 0.883X1 + 0.467X2$$

- $$\textcircled{1} \text{ 10분 미만} = 4.533 - 0.883(1) + 0.467(0) = 3.65$$
- $$\textcircled{2} \text{ 10~30분} = 4.533 - 0.883(0) + 0.467(0) = 4.533$$
- $$\textcircled{3} \text{ 30분 이상} = 4.533 - 0.883(0) + 0.467(1) = 5.02$$

위의 논의(①~③)에서 팔호 안의 (1, 0)은 더미변수 값이다. 이에 의하면 대화시간 10분 미만은 ‘조화형’ 반응에 3.65만큼, 대화시간 10~30분은 ‘조화형’ 반응에 4.53만큼, 대화시간 30분 이상은 ‘조화형’ 반응에 5.02만큼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다면 대화시간이 길수록 ‘조화형’ 반응을 보일 빈도는 높아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화를 많이 할수록 상대를 배려(양보)하는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조화의 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의도하는 인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4. 연구문제4의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4는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대화 형태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이다. 대화 형태와 갈등 반응 유형(경쟁=1, 조화=2, 회피=3, 타협=4, 통합=5)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통합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쟁형, 토의형, 문답형 토론”이 질적 변수이므로 두 개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1~13>과 같다.

<표 11> 대화 형태에 따른 갈등 인식 양상 모형 요약

모형 요약^b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200a	.040	.034	1.453

a. 예측값: (상수), 대화형태dummy2, 대화형태dummy1

b. 종속변수: 통합형

〈표 12〉 대화 형태에 따른 갈등 인식 양상 계수

계수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 한계	VIF
1 (상수)	5.397	.126		42.532	.000		
대화시간 dummy2	-.629	.232	-.158	-2.714	.007	.841	1.189
대화시간 dummy1	-.597	.173	-.201	-3.450	.001	.841	1.189

a. 종속변수: 통합형

〈표 13〉 대화 형태에 따른 갈등 인식 양상 분석

분산분석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29.625	2	14.812	7.016	.001a
잔차	709.349	336	2.111		
합계	738.973	338			

a. 예측값: (상수), 대화형태dummy2, 대화형태dummy1

b. 종속변수: 통합형

분석결과 비표준화계수에 의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괄호 안은 더미변수 값임).

$$Y(\text{통합형}) = 5.379 - 0.629X1 - 0.597X2$$

$$\textcircled{1} \text{ 논쟁형 토론} = 5.379 - 0.629(1) - 0.597(0) = 4.75$$

$$\textcircled{2} \text{ 토의형 토론} = 5.379 - 0.629(0) - 0.597(0) = 5.379$$

$$\textcircled{3} \text{ 문답형 토론} = 5.379 - 0.629(0) - 0.597(1) = 4.782$$

위의 회귀식에 의하면 논쟁형 토론은 ‘통합형’ 반응에 4.75만큼, 토의형

〈표 14〉 논쟁형과 토의형을 비교했을 때의 기대되는 빈도

	논쟁형 토론 (56명)	토의형 토론 (132명)	문답형 토론 (151명)	기대되는 빈도
경쟁	260	511	595	612.85
조화	201	482	587	473.78
회피	311	731	878	733.07
터협	252	599	692	594
통합	266	710	722	627
계	1290	3033	3474	3040.71

토론은 ‘통합형’ 반응에 5.38만큼, 문답형 토론은 ‘통합형’ 반응에 4.78만큼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합형’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토의형 토론’이 논쟁형 토론이나 문답형 토론과 비교하여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집단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가급적이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고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성원끼리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집단 간의 단순한 접촉보다는 함께 행동하되 협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갈등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Mook, 2007: 46).

위의 〈표 14〉는 통계적 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 수와 빈도에 의한 비례 관계를 고려해볼 때 논쟁형과 토의형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되는 빈도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⁸⁾ 그리고 〈표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회피>통합>터협>경쟁>조화”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향성은 모든 연구문제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8) 기대되는 빈도는 다음과 같이 비례관계를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56(명) : 260(선택 빈도)=132(명) : χ ”에서 “ $\chi=612.85$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토의형 토론의 경우 511(선택 빈도)인데, 논쟁형과 비교했을 때 경쟁 부분에서 논쟁형 토론은 “612.85”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표 14>에서 문답형 토론은 제외하고 논쟁형 토론과 토의형 토론을 비교하여 기대되는 빈도를 도출한 결과를 보면 논쟁형 토론을 선호하면 경쟁을 선호하고, 조화를 덜 선호하며, 타협을 싫어하고, 통합은 매우 싫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논쟁형 토론을 선호하면 자기 주관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경쟁적이 되고, 상대적으로 타협과 통합, 특히 통합을 매우 싫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갈등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할 경우에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논쟁형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합을 강조한다면 논쟁형 토론보다는 문답형이나 토의형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권장할 만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5. 연구문제5의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5는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성향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적 측면이든 정의적 측면이든 이들도 앞의 “연구문제1~4”처럼 “회피>통합>타협>경쟁>조화”와 같은 일관성 있는 인식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경향성은 응답자의 기억과 학습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연상을 하는 것이 학습이고, 그 연상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을 때 기억이라고 할 때 성향에 대한 인식 양상은 사실 기억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습의 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자연스런 연구 방법론이 모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설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인식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했다. 성향별 선택의 빈도는 다음 <표 15>와 같다.

다음 <표 15>에서 보면 인지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정의적 측면에서는 “동기”를 갈등을 인식하는 근거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다. 이러한 것으로 추론할 때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을 선호하여 갈등

〈표 15〉 성향별 선택 빈도

	인지적 측면(능력)				정의적 측면(능력)				정의 대비 인지 기준
	확산적 사고력 (25명)	일반적인 지적 능력 (74명)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20명)	소계 (119명)	집중 (43명)	동기 (117명)	개방성과 침울성 (60명)	소계 (220명)	
경쟁	100	332	77	509	168	447	237	852	941.1
조화	102	263	88	453	181	408	227	816	837.5
회피	136	407	124	667	226	692	335	1253	1233.1
타협	109	330	85	524	199	536	284	1019	968.7
통합	128	364	87	579	215	608	295	1118	1070.4
계	575	1698	461	2734	989	2691	1378	5058	5054.5

을 인식하는 근거로 삼아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로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묶어서 살펴 결과도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에서 정의적 측면과 대비가 되는 인지적 측면을 근거로 추정할 때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인지적 측면을 선호하는 성향이면 정의적 측면을 선호하는 성향에 비해 더 경쟁적이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측면은 논리성과 추상성이 강조된다. 특히 논리성은 경쟁을 할 경우에 화자나 필자에게 유리한 작용 기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활동이나 판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인지적 측면을 선호하는 성향이면 정의적 측면을 선호하는 성향에 비해 조화를 덜 선호한다. 인지적 측면을 선호하면 정의적 측면을 선호하는 사람에 비해 자기보다는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조화를 덜 선호한다. 따라서 조화를 인성 교육의 내용에서 강조할 경우에는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의 기본 관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인지적 측면을 선호하는 성향이면 정의적 측면을 선호하는 성향에 비해 회피, 타협, 통합을 덜 선호한다. 다시 말하면 정의적 측면을 선호하면 회피, 타협, 통합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적 측면은 주로 이성보다는 감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을 중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즉흥적으로 판단하여 갈등 상황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논리성이 강조되는 타협과 통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보다는 상황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Mook, 2007: 48), 갈등 상황과 갈등 인식의 주체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인성 교육에서 상황적 요인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끝으로 6가지 성향과 갈등 반응 유형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성향더미변수 1, 2, 3, 4, 5, 6 & 유형 1~5(경쟁형, 조화형, 회피형, 타협형, 통합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맞춤형 인성 교육을 위한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갈등에 관한 인식의 양상을 Berko 등이 만든 설문지를 활용하여 파악했고, 통계처리는 SPSS 18.0을 활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의 양상만을 탐색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인성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에 관해 모든 연구문제에서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은 “회피>통합>타협>경쟁>조화”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회피를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설문지에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로 “융합형”이 발견되었다. 융합형에 대한 인식은 타협과 통합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인식한 결과의 반영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남녀별로 비교를 했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경쟁적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화(양보)를 더 선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덜 회피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혈액형에 따른 인식의 양상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혈액형별 차이는 남녀를 통합하여 처리할 경우 “회피>통합>타협>경쟁>조화”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셋째, 대화 시간과 갈등 반응 유형의 상관관계를 탐색할 때 대화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대화 시간의 양이 조화(양보)형 반응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연구문제3과 관련된 회귀식 참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해줄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갈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을 사사해주고 있다.

넷째, 대화 형태에 따른 갈등의 양상에서 통합형을 강조할 경우에 토의형 토론을 강조해야 한다(연구문제4와 관련된 회귀식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갈등과 그 해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논쟁형 토론보다는 토의형 토론이 인성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섯째, 성향에 따른 갈등 인식의 양상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정의적 측면에서는 동기를 갈등 인식의 중요한 성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경우에 정의적 측면이 약 2배 정도가 많은 선택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추정하자면 우리들이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을 우선시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적 능력을 선호하는 성향이면 정의적 능력을 선호하는 성향에 비해 좀 더 경쟁적이고, 조화를 덜 선호한다. 또한 인지적 능력을 선호하는 성향이면 정의적 능력을 선호하는 성향에 비해 회피, 타협, 통합을 덜 선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양상에 대한

이해는 갈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 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에 무엇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 본 논문은 2017. 5. 10. 투고되었으며, 2017. 5. 16. 심사가 시작되어 2017. 6. 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재봉(2016),『언어심리 기반의 말하기와 글쓰기』, 형설출판사.
- 박창호 외(1998),『현대 심리학 입문』, 정민사.
- 천경록(2014),「국어과 인성 지도 방법 연구」,『창의·인성 기르기를 위한 융합 교육 방안 탐색』, 대학-부초공동연구 기초연구결과보고서, 37-50,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 Berko, R. et al.(2016), *Communicating: A social, career, and cultural focus* (12th), Pearson.
- Gist, M. E., Stevens, C. K., & Bavetta, A. G.(1991), "Effects of self-efficacy and post-training intervention on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complex interpersonal skills," *Personnel Psychology* 44(4), 837-861.
- Light, J.(1989), "Toward a defini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individuals us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stem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5(2), 137-144.
- Mook, D.(2007),『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실험심리 45가지』, 진성록 역, 부글북스(원서출판 2004).

갈등에 관한 인식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다음 설문은 맞춤형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갈등에 관하여 예비교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3일, 국어교육과 교수 김재봉 드림

※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기본 사항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 ① A ② B ③ AB ④ O

3. 하루의 대화 시간은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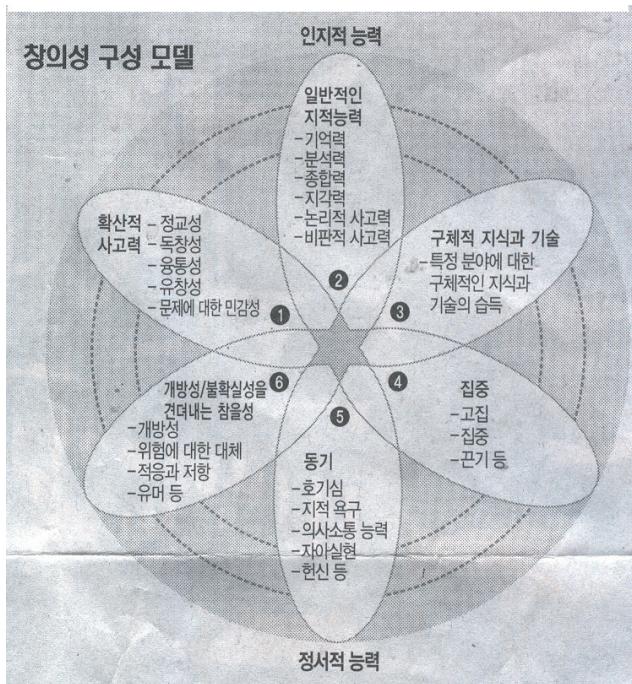
- ① 10분 미만 ② 10분~30분 ③ 30분 이상

4. 평소에 어떤 대화의 형태를 선호합니까?

- ① 논쟁형(쟁점이 있는) 토론 ② 토의형 토론 ③ 문답형 토론

5. 당신은 스스로 어떤 성향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 ①~⑥ 중에서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체크해주세요.⁹⁾

9) 그림에서 “창의성 구성 모델”은 보여주지 않고(지우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II. 갈등에 관한 설문지

※ 안내 사항: 다음 진술 중에서 어떤 것이 각각의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 T나 F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원으로 표시하시오. 비록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둘 중의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첫 느낌(instinct)이 가장 좋은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1	2	3	4	5
1. 의견, 필요, 또는 욕구의 차이가 있을 때, 나는 옳고 그(그녀)가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차이를 탐색하는(조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F				T
2. 의견, 필요, 또는 욕구의 차이가 있을 때, 누군가를 내 관점에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관점에 대해 단순하게 동의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관점이 가지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F	T
3. 불쾌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나는 논의 없이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무기한으로 그 과제를 연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F	T		
4. 의견, 필요, 또는 욕구의 차이가 있을 때, 나는 대화에서 움츠려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T		F		
5. 때때로 쟁점이 있는 주제에 대한 논평을 회피하기 위해서 토론 없이 원가를 함께 해 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동의해버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T	F		
6.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50%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F			T	
7. 의견, 필요, 또는 욕구의 차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F		T		
8. 관점에 대한 잠재적 불일치가 있을 때, 다른 관점을 탐색하기보다는 잠재적 불일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T		F
9.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전적으로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과 만나서 타협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F		T	
10. 때때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토론 없이 동의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F	T			
11.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에서 위축되기보다는 내가 50% 정도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			F	T	
12. 하고 싶지 않은 과제를 하도록 요구받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과제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적으로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F		T		
13.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내 생각에 동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	T			F	
14. 의견, 필요, 욕구의 차이가 있을 때, 대화나 갈등으로부터 움츠려들기보다는 차이를 탐색하고,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	F		T		
15. 하고 싶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을 때, 내 느낌을 토론하고(표출하고) 양쪽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			T		F

16. 의견, 필요, 또는 욕구의 차이가 있을 때, 차이를 탐색하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T			F
17.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차이를 탐색하기보다는 나도 절반 정도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T	F
18. 때때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토론 없이 바로 동의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T		F	
19. 의견, 필요, 또는 욕구의 차이가 있을 때, 토론 없이 양보하기보다는 차이를 탐색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F			T
20. 의견, 필요, 또는 욕구의 차이가 있을 때, 관점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고 내 관점을 회생시키기보다는 토론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T	F		
21.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보다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F			T
22.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전적으로 양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T	F		
23. 하고 싶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을 때,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바로 절반만이라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			T	F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의 갈등에 관한 인식 양상 연구

김재봉

이 연구에서는 Berko 등이 제안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갈등에 대한 인식의 양상을 탐색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은 갈등에 대해 “회피>통합>타협>경쟁>조화”와 같은 인식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Berko 등이 제안한 갈등 유형과는 별도로 “융합형”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둘째, 혈액형에 따른 인식의 양상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남녀 구별 없이 처리할 경우 인식의 양상은 “회피>통합>타협>경쟁>조화”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셋째, 대화 시간과 갈등 반응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했을 때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조화형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

넷째, 대화 형태와 갈등 반응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했을 때 토의형 토론이 통합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

다섯째, 인지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정의적 측면에서는 동기를 인식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을 우선하여 갈등 양상을 인식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핵심어 갈등, 갈등에 관한 인식 양상

ABSTRACT

Exploring Patterns of Pre-service School Teachers' Conflict Recognition

Kim Chaeb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patterns of conflict recognition which has made questionnaire by Berko etc..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e-service school teachers' realized the aspects of conflict as "avoidance > integration> compromise> competition> accommodation". Berko etc. suggested five patterns. But the new pattern of conflict is discovered in this research. This type is another. We name it "convergence type".

Second,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aspects by blood type is meaningless statistically. But the aspects of conflict recognition without distinction of sex are exposed to "avoidance > integration > compromise > competition > accommodation".

Third, when we explored the correlation between talk time and conflict response patterns, the more we have talk time, the more we have meaningful accommodation pattern statistically.

Forth, when we explored the correlation between talk patterns and conflict response patterns, the debate of discussion pattern has statistically meaningful response to accommodation pattern.

Finally, when the pre-service school teachers' judge the aspects of conflict, they are based on a general intellectual ability in cognitive perspective and a motivation in an affective perspective. Also when we consider both cognitive perspec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hey judge the aspects of conflict recognition which motivation take priority over cognition.

KEYWORDS Conflict, Patterns of Pre-service School Teachers' Conflict Recognition